

# 고향사랑기부제 인기 답례품은 '특산물'

굴비·활전복·갯김치 등 1순위 '지역발전' 의미 상품권도 선호 '네이밍 도네이션' 등 다양각색

올해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전국 지자체가 마련한 답례품이 5,000여종에 달하는 가운데 광주·전남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광주·전남 지자체들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은 기부 의사를 밝힌 기부자가 기부금을 입금할 가상계좌를 발급 받으면서 함께 선택할 수 있다. 시행 초기인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특산품이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기준 나주시의 경우 나주배, 담양 떡갈

비, 영광 굴비, 완도 활 전복, 강진 한우, 여수 갯김치, 광양 매실, 보성 키위·피망, 곡성 흑돼지 삼겹살, 목포 홍어·민어, 고흥은 분청도자기가 기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모두 해당 지역의 특산물들이다.

광주시에 기부한 참여자들도 주로 '농축산물 꾸러미'를 선택하고 있다. 이 꾸러미는 지역 농가들이 기른 감자, 토마토, 각종 채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순군은 '온라인 쇼핑몰 농특산물 사이트 포인트'를 유일한 답례품으로 두고 있다. 기부자들은 기부금의 30%를 해당 사이트 포인트로 받아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 이 홈페이지에 선 화순이 원산지인 여러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에 걸맞게 지역상품권도 인기 품목이다. 순천시의 경우 기부자 30명

중 11명이 답례품을 신청했는데 이중 대부분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요청했다. 구례군과 장흥군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색 답례품이 눈길을 끄는 곳도 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주는 '네이밍 도네이션'을 도입했는데 해당 답례품은 앞으로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밍 도네이션은 10만원 이상 기부자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 등 희망하는 이름을 1991년에 개관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좌석에 새겨주는 프로젝트다.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좌석은 1,900여석 정도로 답례품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군은 '전하장사와 함께 하는 식사권'을 답례품으로 올렸다가 이달 중 씨름대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답례품 명단에서 현재 배제해

놓은 상태다.

영암군 내에서는 이 답례품이 SNS 등을 통해 이슈를 만들고 있어 추후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평군의 경우 자동차 극장예매권이 선호되고 있고, 장성군에서는 '백양사 템플스테이'와 '산소 별초 서비스'가 인기다.

백양사 템플스테이는 월·금요일 사이 1박2일 동안 기부자에게 백양사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별초를 선택한 기부자는 산림조합과의 논의를 통해 원하는 시기에 무료 별초를 받을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호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행 초기 농수축산어가 판매축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특산물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올해 관광진흥기금 100억 용자도, 상반기 70억 최저금리 적용

전남도는 8일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돕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3년 관광진흥기금 용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용자 규모는 100억원으로 상반기에 70억원을 배정하고 대출금리는 최저인 1.0%로 확정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월3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시·군 관공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광진흥기금 용자 대상은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여행업 등 민간 관광사업체로 시설 확충과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용자 한도는 대상 업종과 용도에 따라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다.

상환 조건은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증축은 3년 거치 4년, 신축은 4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된 만큼 도내 관광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관광진흥기금 620여억원을 조성해 지난해까지 도내 74개 업체에 354억원을 지원했다.

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를 비롯,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근산 기자

## 14년 기다린 숙원, 새해 초 날아올라라

▶1면에서 계속

전남도는 올해 국비 71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71억8,175만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면 중저지 환경영향평가 재개와 실시계획 등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개항 시기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흑산공항은 불편한 교통망 해소와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신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목포항에서 92km가량 떨어진 흑산도는 풍랑 및 안개 주의보가 발효되면 발이 묶이기 일쑤다. 결항률이 11%에 달해 대체수단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는 온종일 여객선 운항이 불가능했던 날이 52일, 하루 1회 이상 운항이 통제된 날이 115일에 달했다.

흑산공항이 건설되면 김포공항에서 흑산도까지 육로와 뱃길을 통해 8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고 생산유발효과 1,806억원, 부가가치유발 666억원, 취업유발효과 1,226명 등이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대체부지 마련으로 흑산공항 개발 제약 조건이 사라진 데다 위원들이 흑산공항 건설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어 심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이뤄지면 오랜시간 표류해 온 공항 건설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시, '학부모 10시 출근' 확대 중소사업장 장려금 기업 모집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올해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기업을 확대, 모집한다.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초등1학년 학부모 근로자가 입학기(3-7월)에는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근시간 조정은 최대 2개월간 가능하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늦춰주는 대신 1시간 가량의 손실분을 광주시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고 출근만 1시간 늦게 하는 방식이다.

첫 도입한 지난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원인원을 25명 늘려 125명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업도 특수고용 사업장과 지사 영업소까지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보험설계사·예술가·학습지도사·백화점 판매종사원 등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업장에 종속 근무하는 특수고용자의



5·18 삭제 철회 촉구 광주시 남구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문석열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삭제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구의회 제공

경우 소속사업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사 영업소가 있는 사업장도 근로자가 300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대체인력, 단시간 근로자(4시간 미만 제외)도 대상에 포함된다. /길용현 기자

# "영화관 없는 시·군, 작은영화관 지속 건립"

김 지사, 영암 기찬시네마서 '영영' 관람... 영상문화 확산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와 영상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영화관을 지속해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1970년대 말 폐관 후 40여년 만에 문을 연 작은영화관인 영암 기찬시네마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피고,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그린 최신 상영작 '영영'을 관람했다.

영암읍에 위치한 기찬시네마는 지난해 12월 21일 개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가 6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영암군이 19억8,000만원 등 총 26억3,000만원을 들여 건립했다. 지

상 1층 연면적 1,089㎡, 건축면적 490.46㎡ 규모로 총 2개 상영관 93석(1관 58석·2관 35석)과 2D, 3D 등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작은영화관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많지 않은 군 지역에서 대도시까지 나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 영화를 관람하는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4년부터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도민 편의를 위해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장흥 정남진 시네마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강진, 무안, 신안, 3개 시군은 건립 예정이거나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이번 영암 기찬시네마를 필두로 전남의 영상산업이 발전하고, 도민 문화 향유 기회가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며 "전남이 가진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글로벌 케이(K)-컬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상속포기공고**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2022년4891 상속포기  
 청구인: 박은미, 유경선, 박은혜  
 피상속인: 방 박원철  
 (340217-1-\*\*\*\*\*-2022년 9월 7일 사망)  
 최후주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0길 22, 110동 820호 (중계동, 주공아파트)  
 청구인 박은미, 유경선, 박은혜의 피상속인 방 박원철의 재산상속을 함께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 하여서 한 2022년 11월 21일자 상속원정승인 신고가 2022년 12월 14일자로 수리 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에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9일  
 청구인: 유경선 (010-5586-6635)  
 채권신고주소: 대전 중구 문화로 46, 202호 (산성동)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 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단 /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택배상 302-0316-649511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상속포기공고**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2022년15120 상속포기  
 청구인: 김소이  
 피상속인: 방 박원철  
 (340217-1-\*\*\*\*\*-2022년 9월 7일 사망)  
 최후주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0길 22, 110동 820호 (중계동, 주공아파트)  
 청구인 김소이의 피상속인 방 박원철의 재산상속을 함께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 하여서 한 2022년 12월 7일자 상속원정승인 신고가 2022년 12월 14일자로 수리 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에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9일  
 청구인: 김소이 (010-5586-6635)  
 채권신고주소: 대전 중구 문화로 46, 202호 (산성동)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